



포항에 투자하십시오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 환동해권 국제물류 경제중심 영일만항 개항
- 영일만 자유무역지역과 배후 및 4산업 단지 조성
- 국제비즈니스센터와 융합기술지구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 테크노파크2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등 조성
-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오션르네상스시대 실현

대양과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포항의 현재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해까지 월간으로 발행되던 '갈매기소식'과 계간으로 발행되던 '열린포항'이 포항시승격 60주년을 맞아 보다 알차고 유익한 시정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해 월간 '열린포항'으로 통합 발행하게 됩니다.

열린포항은 앞으로 다양한 시정 및 생활 정보는 물론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시민교양·정보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모집

열린포항은 시민 여러분이 만드는 시정소식지이자 교양지입니다. 열린포항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관심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해 주십시오. 시민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열린포항을 채우겠습니다.

시정에 바라는 이야기, 전하고 싶은 이야기, 시, 수필, 콩트, 기행문,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삶의 체험담, 추억의 사진, 타향에 계시는 향우들의 활동, 미담, 포항의 얼을 알리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글, 우리회사·마을 자랑거리 등 주제는 자유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790-722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포항시 공보담당관실 열린포항 담당자 앞
Tel.(054)270-2334 Fax.(054)270-2240
E-mail. jyhak333@korea.kr

열린포항

www.ipohang.org



» 04



» 10



» 14



» 20



» 22

2009 CONTENTS

- 04 New Start Pohang | ① 포항시승격 60주년 의미와 주요사업
- 08 포커스 | 2009년 시정을 말한다
- 10 테마기획 | 현장 25시...동빈내항 복원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 14 위기를 기회로 | 청하에그린
- 16 포항시론 | 포항, 녹색성장에 살길 찾아야
- 18 인터뷰 | 이철구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
- 20 문화마당 |
- 22 시정브리핑 |
- 24 포항레이더 |
- 25 의정브리핑 |
- 26 | ♥ POHANG |
- 27 지상갤러리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주말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사진 • 정미향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방진모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정연하
- 발행일 : 2009년 2월 25일
- 기획·편집·인쇄 | (주)금강미디어 Tel : 054-275-0558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새로운 포항시대 선언과 함께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꿈 펼친다



● ● ● 올해는 포항시승격 6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작은 어촌도시에 불과했던 포항이 60년 만에 대한민국 굴지의 산업도시로 그 입지를 굳혔다. 포항이 지난 60년의 공지로 오늘의 시대정신인 통합을 이룩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60주년이 될 수 있도록 'New Start Pohang' 을 연중기획시리즈로 신는다. ● ● ● (편집자주)



포항시 60년은 공지의 역사

1949년 8월 15일 포항이 시로 승격되면서 시민들은 이에 감격한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정어리 잡이 어선들만 눈에 들어올 뿐 근대화를 위한 개발현장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당시 포항은 한눈에 보아도 농어업이 주축인 고즈넉한 어촌도시에 불과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2009년 포항은 POSCO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 철강도시의 위용을 뽐내며 환동해 경제권의 국제물류 중심항만인 영일만항이 개항되고,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항만배후산업단지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테크노파크2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동빈내항 복원이 시작되면서 포항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역동적인 모습이다. 상전벽해와 같은 발전이다.

》》》 기념사업은 지난 60년의 공지로 새로운 포항시대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 60년을 냉철하게 정리하여 포항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52만 시민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대열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2009년은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원년

지난 60년 포항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며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견인한 주역이었다. 그래서 격동의 현대사는 포항시민을 한민족 오천년의 가난과 절망을 풍요와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시민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포항시 60년은 한마디로 공지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동양에서는 60년을 한 주기로 여겨왔다. 그래서 시승격 60주년은 포항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전환기에 왔음을 의미한다. 포항은 이제 지난 60년의 공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새로운 목표는 선진화를 통해 포항을 세계일류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9년은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원년이 되어야 한다.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시승격 60주년은 막중한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지난해에 민간으로 구성된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양용주)가 발족되었으며, 추진위가 중심이 되어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이와 관련한 각종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념사업은 지난 60년의 공지로 새로운 포항시대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 60년을 냉철하게 정리하여 포항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시민에게는 강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하고, 그리고 52만 시민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대열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제고, 새로운 포항시대의 비전 제시, 시민의 화합과 지역의 통합,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모든 시민이 함께 열어가기 위한 캠페인 등 포항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 ● ● 2009년 1월 1일 0시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에서 카운트다운과 함께 기축년이 열리면서 60주년 첫 기념행사인 '새로운 포항시대 선포식'이 펼쳐졌다. 새로운 포항시대 선언문이 낭독되고,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포항의 꿈과 희망을 빛에 담아 영일만 하늘로 쏘아 올렸다. ● ● ●



엠블렘

60은 과거의 역동성, 현재의 화합, 미래의 무한 성장을 의미하며, 이것을 뫼비우스띠로 표현하였다. 29개 빛은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과 29개 읍면동을 의미한다.

사업방향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꿈'을 주제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계층·세대의 통합을 위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기존 행사를 60주년 기념행사로 격상하고, 전국 규모 행사를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치한다.

슬로건 : New Start 2009 (새로운 출발 2009)

주 제 :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꿈

포항시승격 60주년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기를 맞았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포항시대를 향해 전진해야 함을 뜻한다. 새로운 포항시대의 목표는 세계일류도시 건설이고, 이런 의미에서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꿈을 기념행사의 주제로 삼았다.

포항시 60년 타임캡슐에 담는다

2069년에 보는 2009년의 포항. 포항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이 제작된다. 시는 'New Start 2009 Time Capsule'에 포항의 역사와 현주소는 물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담아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기 위해 제작한다는 것. 현재 시가 추진하는 타임캡슐 형식은 매립하거나 조형물 형태로 제작하던 기존 형태에서 탈피한 전시형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 아울러 타임캡슐 외부는 LCD화면을 설치해 청사 방문객에게 포항의 비전을 담은 영상물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미디어 스피어를 동시에 설치함으로써, 캡슐에 담긴 포항시의 과거 60년의 발자취를 비주얼 효과영상 연출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타임캡슐 설치 장소로 시청사 지하층 로비가 검토되고 있으며, 오는 8월 15일 시승격 60주년 기념식 때 제막식을 갖고 시승격 120주년이 되는 2069년 8월 15일에 개봉할 예정이다. 타임캡슐에는 정치·행정·지역경제·교육·과학·해양·문화·관광·예술·체육·지역개발·환경·교통·지역사회·복지·여성·보건·생활 등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현재의 포항 모습을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자료 600여점을 수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화 혹은 방문접수 등의 방법을 통해 타임캡슐 수장품목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있다. 특히 타임캡슐을 통해 후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영상, 사진, 미술품, 기념서적, 홍보물 등 각종 기록물, 포항시의 모습, 시민생활, 사회 문화 등을 대표하는 품목, 개발 등으로 인하여 멸종, 철거 등 사라질 수 있는 주요 품목, 포항지역에 독특하게 전해 내려오거나 존재하는 품목, 포항의 역사성, 시민 생활상, 지역 특수성이 조화된 품목, 포항을 빛낸 인물 등 지역의 귀중한 자료 발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포항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

[월별 주요행사]

4월

- 해병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시민운동
- 형산강사랑 범시민 걷기대회
- 형산강사랑 범시민 걷기대회
 - 행사기간 : 2009. 4. 25(토)
 - 사업내용 : 포항발전 60년의 변천을 함께한 형산강에 대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5월

- 후쿠야마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 기념광장 조성 및 상징조형물 건립
- 포은문화제
- 후쿠야마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 행사기간 : 2009. 5. 29 ~ 5. 31
 - 사업내용 : 眞株婚式(30주년), 국악공연, 사물놀이, 한국전통문화 체험 등

6월

- 포항시민의 날 행사
- 아시아-태평양 슈퍼모델 선발대회
-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
- 포항시 상징물 변경
- 통일기원 해변마라톤
- 읍면동 주간행사
- 한옥구 선생 탄생100주년 문화제
- 포항시민의 날 행사
 - 행사기간 : 2009. 6. 12
 - 행사장소 : 시청 문화복지동
 - 행사내용 : 기념행사, 문화행사 등

7월

- 포항국제불빛축제
- 바다국제연극제
- 포항국제재즈페스티벌
- 한여름 밤의 콘서트
- 청소년문화축제
- 세오녀문화제(여성주간행사)
- 포항불빛미술대전
- 전통어업(후릿그물)재현
- 포항국제불빛축제
 - 행사기간 : 2009. 7. 25 ~ 8. 1
 - 행사장소 : 북부 및 송도해수욕장, 형산강체육공원 등 시내일원
 - 행사내용 : 국제뮤직불꽃쇼, 불빛퍼레이드, 바다와 해안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

8월

- 포항시승격 60주년 기념행사
-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
- 포항소재「한문,문학작품 공모전
- 포항시승격 60주년 기념행사
 - 행사기간 : 2009. 8. 15
 - 행사장소 : 종합운동장, 북부해수욕장 등
 - 행사내용 : 기념행사, 공연 등

9월

- 영일만항 개장행사
- 다무포 고래맞이 축제
- 새마을 기념관 개관
- 영일만항 개장행사
 - 행사기간 : 2009. 9
 - 행사장소 : 영일만항 컨테이너 터미널
 - 행사내용 : 식전행사, 개장식, 문화행사 등

10월

- 일월문화제
- 제1회 전국항토음식축제
- 대학 연합페스티벌
- 시민노래자랑
- 실학사상 학술세미나
- 농경문화 전시 및 체험행사
- 일월문화제
 - 행사기간 : 2009. 10. 7 ~ 10. 13(7일간)
 - 행사장소 : 문화예술회관, 중앙상가 등
 - 행사내용 : 연오랑·세오녀선발, 퍼레이드·공연·전시행사 등

11월

- 제6회 세계로봇올림피아드(WRO)
- 포항미술관 개관
- 포항관광사진전
-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 포항가족과학축제
- 제6회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WRO)
 - 행사기간 : 2009. 11. 6 ~ 11. 8(3일간)
 - 행사장소 : 포항공대 실내체육관
 - 행사내용 : 로봇제작발표, 학술회의, 로봇영화상영, 로봇경진대회

12월

- 새천년기념관 개관

비상시정으로 경제난국 극복하고 환동해 경제중심 도시로 비상한다



포항이 이번 위기를 잘만 극복한다면 더 큰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올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가 개항되고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다. 여기에 동반운하 건설과 동반부두 정비는 물론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테크노파크2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조성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형 사업들은 포항이 오늘의 어려움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올 한해 시정여건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난에 준하는 경제위기로 인해 시정운영 역시 비상 경제시정으로 전환한 상태이다. 이는 올 한해 시정운영의 큰 흐름이 될 것이다. 포항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비상시정이라는 판단으로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고 세계적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올해 역시 민생경제가 최우선 시책이다. 그래서 올해를 '민생시정의 해' 로 정하고, '민생안정종합대책' 을 마련, 서민생활의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시민들이 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위한 안정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비상상황을 반영, 기존의 틀을 벗어난 비상 대책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재정 조기집행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올 상반기 내 사업예산 90% 이상 발주, 60% 이상 집행이 목표이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예산집행 절차를 단축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과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개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SOC사업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도 상반기 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복지비를 확대·지원하고 등 경제·사회안전망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 수출이 격감하고 실물경기가 곤두박질하는 등 경제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민생경제가 도대체 회복될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는 그때마다 잘 극복해 냈다. 특히 포항은 영일만의 신화를 창조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포항은 위기에 강한 경험과 저력을 가진 도시이다. 오늘의 위기 역시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

6~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1회 추경을 3월로 앞당겨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상반기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민생안정 시정과 함께 포항브랜드 제고를 통한 기업투자유치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포항에는 지금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포항의 부를 담을 공간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산업단지조성팀, 일본TF팀 등 일부 조직을 신설하여 시장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동반내항복원 등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새로운 성장동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동반부두 정비를 필두로 동반운하 건설은 물론 영일만항 배후단지,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파크2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미래 포항을 담보할 핵심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환경도시의 면모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녹색성장을 또 다른 성장의 축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조원 투자유치 달성, 관련분야 일자리 1만개 창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5% 달성을 목표로, 환경도시의 면모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영일만항 개항에 발맞춰 환동해 국제물류·경제중심도시로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것. 오는 8월 영일만항 개항과 함께 제15회 환동해 물류거점도시 회의를 개최, 해외 물류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포항의 실질적 원년이 되도록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포항을 품격과 매력에 넘치는 문화예술·해양관광·레포츠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선진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을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 52만 시민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시민화합과 지역통합을 다진다는 것.

이렇게 포항의 2009년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대단히 힘든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시승격 6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그래서 경제살리기와 함께 이제는 산업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벗고, 선진도시 포항의 이미지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 2009년 시정의 골격이다.



포항시 공무원들이 올하는 황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시정을 다짐하고 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 전체 조감도

2009년 포항의 화두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밑그림

● ● ● 지난달 포항시가 '2008년 포항시정 Top7사업' 을 선정했는데, 그중 '동빈내항 복원사업' 이 최우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시민의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핵심시책이다. 경제살리기와 함께 2009년 포항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동빈내항 복원사업' 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지를 짚어본다. ● ● ●



사업의 미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운하를 건설해 40년 넘게 끊어진 물길을 이어 동빈내항의 오염된 정체수역 환경을 복원하고, 그 수변을 유원지로 조성하여, 이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킨다는 하나의 핵심시책 차원을 넘어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선4기 포항시정이 그야말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야심차게 그리고 있는 '오션 르네상스를 통한 도심재생'이라는 대단위 프로젝트의 밑그림이자, 그 시작을 알리는 사업이었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업은 동빈내항 정체수역의 환경복원과 수변유원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인간·산업·문화·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21세기형 인간중심의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밑그림이자, 이른바 '구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머지않아 52만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한편, 산업도시 포항을 환경·관광·명품도시의 반열에 올리는 것은 물론 구도심 재생을 촉진하여 포항을 글로벌 창조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동빈운하 건설과 함께 96,120㎡에 달하는 수변을 쾌적한 유원지로 조성하고, 인근의 해도·송도·죽도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건설되고, 동빈부두가 테마거리로 말끔히 정비되고, 여기에 1.7Km에 달하는 송도백사장이 복구되고, 포항구항이 해양공원으로 조성되면, 포항은 마침내 '오션르네상스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이다.

이는 도시팽창과 함께 급속히 슬럼화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구도심을 빠르게 재생시키고, 영일만항과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등과 어울려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포항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추진현황

동빈내항 복원 중 핵심사업인 길이 1.3Km, 폭 18~30m에 달하는 운하건설(송도교~해도



해도동빈부두 조감도

동 형산강 입구)과 96,120㎡에 달하는 수변유원지(수변상가, 문화 영상체험관,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대한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총사업비는 1,170억 원이지만 시비 4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자(주택공사 770억, 포스코300억)와 국도비로 이루어진다.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예산도 확보된 상태이다. 이제 순조로운 보상과 시공만이 남았을 뿐이다.

향후 계획

포항시는 조만간 해도수변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대한주택공사와 세부실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4월 중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아울러 사업구간 내 휴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 민간부분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는 사업이지만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이 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포항시와 보상대상자간에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숙된 시민의식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주변 계획 사업

▶▶▶ 수변 유원지 주변 도시재정비 사업

현재 슬럼화되어 있는 동빈운하 수변유원지 인근의 해도·송도지역 517,468㎡에 대해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뉴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을 도시의 핵으로 재개발하여 구도심 재생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주택공사와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했다. 시는 또 올해 들어 경북도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신청했고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했다. 재정비지구 중 수로주변은 상업·숙박·문화시설 지역으로, 그 배후지역은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 동빈부두 정비사업

현재 각종 담장 및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동빈동 일원 동빈부두가 테마거리 등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품에 돌아온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올해 완공 예정인 동빈부두 정비사업은 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죽도시장에서 수협 앞까지 길이 1.3Km에 달하는 부두 일원의 담장 및 창고,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거나 이전시키고, 이 지역을 가로변 녹지나 운무마당·포토존·돌다리마당 등 테마거리, 조명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 송도백사장 복구사업

포스코 건립 전에는 명사십리 백사장으로 동해안 최고 해수욕장을 자랑하던 송도백사장이 복구된다. 이 복구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총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되며, 폭 100m, 길이 1.7Km의 백사장을 복구하는 것으로 주변환경 회복과 함께 도심부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포항시에서 국가시행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사장 뒤편으로 해변도로도 함께 개설할 계획이다.

▶▶▶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은 동빈내항 복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무역항 기능상실에 따른 항만기능 재편과 병행 검토하여 국토해양부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송도동 일원의 포항구항 16,400㎡에 오는 2011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양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공원은 각종 축제 및 이벤트 행사를 펼칠 수 있는 시민광장으로 조성되고, 요트계류장, 해양조각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가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 연안정비계획 변경을 요구하며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해 둔 상태이다.



여러번 고비 있었지만 '그린경영'으로 최고 자리 올라...

지난

해는 축산물 수입개방 및 AI사태, 거둬지는 사료가격 폭등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축산농가가 여느 해 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깨끗한 의지로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소위 잘 나가는 축산농가를 찾아가 보았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7번 국도변 송림 속에 위치한 양계농장 '청하에그린'(사장 박한수). 농장을 둘러싼 풍광은 가히 신선이라도 살 것 같다. 그런 곳에 사람도 아닌 닭들이 산다.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란 선입견을 주기에 충분한 경관이다. 그래서인지 이 농장은 지난 2006년 농림부로부터 전국 최고 친환경 양계장으로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이 농장은 주변의 청정한 환경 못지않게 첨단자동화시설로 위해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킨, 친환경적인 사양관리로 더욱 유명해 언론에도 여러 번씩 소개되었다.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양계농가에서는 이 농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견학코스로 삼고 있다. 심지어 서울농업대학 등 대학의 실습농장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총 20만수(병아리5만, 양계15만)의 사육규모를 가진 청하에그린이 주목받는 이유는 박 사장의 전문성과 선진적 마인드가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30여 년간 닭과 생활하면서 오직 좋은 계란을 생산하는데 매달렸다는 박 사장은 "우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맑은 공기와 깨끗한 지하수를 공급하고, 인근 발효사료공장에서 생산한 항생제 없는 친환경



● ● ●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지난해 AI사태가 왔을 때 청하에그린은 포항은 물론, 대구 울산 부산 등으로 오히려 판로가 확장되었다. 그동안의 신념과 노력과 고생이 일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와 산학협약을 맺고 미국 수출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 ● ●

경 발효사료를 먹인 것이 오늘의 청하에그린으로 성장한 비결"이라고 한다.

그는 또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농 축산물을 찾게 된다"며 "그러한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무(無)항생제 축산물뿐만 아니라 유기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콜레스테롤 계란을 생산하는 등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시장의 변화를 읽으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그의 경영 스타일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사료가격이 비싼 시기에 자꾸 쌀 사료만 찾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들 어렵다고 말할 때 나만의 방식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밀고나갈 것"을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 권유한다. 여기에 좋은 사료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것이 30여년 양계를 하면서 얻은 경험이자 성공노하우라고 덧붙인다.

지난 1983년부터 축산업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외길을 걸어왔지만 그에게도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다. 양계를 그만두려고 했던 2002년 그는 뜻하지 않게 독일박람회와 네덜란드 견학기회를 가졌는데, 그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선 혐오시설이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축사가 시내에, 그것도 공원인지 축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나의 큰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는 '그린 농장'을 목표로 다시 뛰었다. 지금의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사료공급은 물론 온도조절 분뇨처리 계란수거 등 전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하루 10만개 가량의 달걀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케이지방식 양계사육에서는 처음으로 무(無)항생제 계란을 생산해 2007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국내 최초 인증을 받기에 이르렀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지난해 AI사태가 왔을 때 청하



에그린은 포항은 물론, 대구 울산 부산 등으로 오히려 판로가 확장되었다. 그동안의 신념과 노력과 고생이 일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와 산학협약을 맺고 미국 수출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곧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귀땀이다.

청하에그린의 또 다른 특징은 계사 인팍 조정에도 그의 '그린 철학'이 배어 있다는 점이다. 그는 "마치 축산현장에 와있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숲속 공원에 와있는 느낌이 나도록 앞으로도 계속 조정과 청결에 힘을 쏟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사업이든 인생이든 사이클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나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좋을 때가 온다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된다고 비판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를 기준삼아 더욱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모두에게 꼭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게 그의 인생철학이다.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한다. 긍정의 힘을 믿는 청하에그린 박한수 사장. 여기까지 온 그의 욕심과 추진력은 앞으로 더욱 빛날 것이란 예감이다.

浦項 녹색성장에 살길 찾아야

글 • 이 석 수 [전 경상북도 정부부지사]

필자는 현재의 국토해양부 전신인 건설교통부, 건설부 등에서 잔뼈가 굵었던 공직자 출신이다. 그는 건설부 재임 시 그린벨트를 만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만드는 등 개발은 곧 환경파괴로 인식되었던 시절에 "개발은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직자였다.

사진 • 정미향

●●●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분야가 바로 녹색성장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선진도시들은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환경이 파괴된 도시는 사람이 떠나면서 쇠락하고 있다. 불과 십 수 년 전만 해도 환경과 상관없이 돈벌이만 되면 사람들이 몰렸던 현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형 재해가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환경문제는 지구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 환경관련 국제 협약들도 하루가 멀게 쏟아지면서 과거 대립적 관계였던 경제와 환경이 급기야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했다. 이는 환경 없이 경제도 없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녹색성장'이 국가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개념 에너지 개발과 신성장동력을 결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개념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정부는 '녹색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환경과 자원 위기에 대비하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녹색성장 전략과 일자리창출 정책을 융합하여,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경제를 녹색경제로 이행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했다.

그리고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녹색뉴딜사업에 무려 50조원을 투입, 36개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약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녹색성장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점점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녹색성장을 통해 지금의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포항도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도시로의 면모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한다. 앞으로 녹색성장을 또 다른 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시정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유치 1조원을 달성하여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5%를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환경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R&DB 특구,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단지, 연료전지단지, 풍력단지 등을 조성하고, 에너지 기후변화 연구개발센터 건립 등의 사업과 함께 녹색성장 전문 기업 및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공공건물 및 일반주택 태양광 사업, 태양광발전기 설치, 초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기업체 등 각 분야와 에너지 절감과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집결지이다. 앞으로 테크노파크에 들어설 주택단지를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탄소제로의 '그린빌리지(녹색마을)'로 조성한다면 어떨까? 21세기 새로운 녹색관광 콘텐츠로 각광받지 않을까 싶다. 마침 정부에서도 그린홈 100만 가구를 보급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우리시민들도 작은 것부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진도시 포항건설 시민운동'일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분야가 바로 녹색성장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선진도시들은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환경이 파괴된 도시는 사람이 떠나면서 쇠락하고 있다. 불과 십 수 년 전만 해도 환경과 상관없이 돈벌이만 되면 사람들이 몰렸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환경은 이제 성장을 확실히 보장하는 분야가 되었다. 바야흐로 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포항은 이제 녹색성장에 살길을 찾아야 한다.



●●● 흥해공설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상인회를 조직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만 도출되면 올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용역업체를 선정, 흥해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興海 포항경제 중심지가 될 것

Q ● 초선으로서 총무경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위원회를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점이 많지 않습니까?

A: 부족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은 사실이고 부담감도 적지 않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경륜이 많은 3선 의원이 세분이나 있어 그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빌리기도 하고 여러 의원들의 조언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 이 속에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왔고 이런 식의 운영이 의원들의 협조와 참여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정치권 국가 SOC 예산이 포항에 편중됐다며 정치 공세를 벌여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위원장님은 그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A: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포항 관련 예산을 '포항예산'이라고 몰아부쳐 마치 포항에 예산이 마구 물리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하나만 두고 봐도 이도로는 포항-경주-울산에 걸쳐 있는 광역사업인데 이걸 포항예산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포항-서울간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가정합니다. 이게 전부 포항 예산이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때문에 '국가 SOC 예산 포항 편중 정치공세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의해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주도했던 것입니다.



Q: 평소 발로 뛰면서 시장 질문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날카롭다는 평가를 받는데 특별히 공부를 하십니까?

A: 공부 많이 합니다. 의회 속기록은 물론 의문이 나는 점은 의회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부탁하고 집행부의 업무 보고 간담회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수집하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계속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Q: 지역구 흥해가 요즘 뜨고 있는 곳 아닙니까?

A: 흥해에 철도 포항 역사가 들어오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이전됩니다. 또 영일만항과 영일만배후산업단지도 들어서게 되죠. 대런리 경제자유구역도 흥해입니다. 앞으로는 흥해가 포항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Q: 그렇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요.

A: 영일만항 개항 영일만배후단지, 경제 자유구역이 들어서도 현재의 흥해 시가지가 경제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게 고민인데 그래서 흥해공설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

을 찾고 있습니다. 상인회를 조직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만 도출되면 올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용역업체를 선정, 흥해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이 제대로 되면 영일만항의 근로자들과 한동대 학생, 그리고 흥해 인근지역의 잠재 상권을 흥해도 심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 지역구의 당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준비하고 있는지요.

A: 28번도로 국도 학천인터체인지 진출입로에 이병석국회 국토해양위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올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흥해 주민들의 숙원인 만큼 더 많이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흥해-장성동간 도로 개통도 흥해가 안고 있는 시급한 과제이며 흥해 옥성리 체육공원 조성 사업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트민턴장 등 들어설 예정인데 우선 내년까지는 국제 규격의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

» 제90주년 3·1절 기념행사 가족과 함께 참석하기

- 일 시 : 2009년 3월 1일 11:00
- 장 소 : 송라면 대전리 3·1만세촌 광장(두곡 숲)
- 참여인원 : 500명
- 식전행사 : 농악대 사물놀이, 포항문화원 예술단 공연
- 본 행사 : 의식행사
- 식후행사 : 대전 3.1의거 기념관 관람, 3.1절 재현, 중식
- 부대행사 : 가족과 함께 참석하기 이벤트 선착순 80명 3.1절 행사참여 ○ 대전 3·1의거기념관 관람 ○ 중식 ○ 대동령고향방문 ○ 포항시청

* 3월 1일 오전 10:00 시청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출발(전화 : 270-2952, 2953)

» 포항시승격 60주년 축하공연

- 제목 : 애 그날의 함성 - 포항의 3·1운동
- 일시 : 2009. 3. 4 ~ 5일 19:30~21: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포항시립교향악단 신춘음악회

- 제목 : 봄의 빠꾸기를 맞이하여
- 일시 : 2009년 3월 20일 19:30~21: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봄이 오는 소리, 우리 가락의 멋

- 제목 : 3월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
- 일시 : 2009년 3월 25일 11:00~12: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시립합창단 제69회 정기연주회

- 일시 : 2009년 3월 31일 19:30~21: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단신

» 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육거리 구 시민회관 부지에 건립되는 소공연장 및 전시관에 대한 명칭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접수기간 : 2009년 3월 1일 ~ 3월 15일(15일간)
- 공모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 포항시청 문화관광과 270-2263)
- 응모자격 : 포항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 공모내용 : 포항의 정체성과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칭
- 시상내역 : 당선작 1명 문화상품권 등 10만원 상당 우수작 2명 문화상품권 등 5만원 상당

» 청림동 푸른숲 작은도서관 개관

청림동 해병사단 BOQ내에 위치한 푸른숲 작은도서관은 333㎡ 면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문화예술기금과 시비로 리모델링 구축하였다. 지난 2008년 죽장 선바위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7번째로 문을 열게 된 청림동 푸른숲 작은도서관은 해병부대 내에 위치한 동민의 문화공간으로 이를 매개로 청림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해병사단과 지역민들이 한층 더 친근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20개소의 작은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향토해산물요리 요리법 책자 발간

포항시여성문화회관은 문어와 대게를 주제로 한 해산물요리 요리법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여성문화회관에서 개발한 문어를 이용한 요리 9종과 대게를 이용한 요리 11종의 요리법이 상세히 기재돼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다.

인터뷰

3월

» 포항시립연극단 김삼일 상임연출가를 만나다.

4일과 5일에 <3.1운동 90주년 기념공연-아! 그날의 함성, 포항의 3.1운동>이 포항시립연극단에 의해 막이 오른다. 포항지역의 역사적 위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삶을 재해석, 재조명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힘쓰고 있는 김삼일 상임연출가를 만나보았다.

Q: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A: 작년 2008년 11월에 '의병대장 최세운'을 기리기 위한 연극공연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연극은 '포항 100년사'의 제2부에 해당하고, 8월 초에는 <아! 형산강아 말해다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공연 할 예정인데 그것은 3부로써 작년과 올해를 거쳐 '포항의 100년사'가 완성,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Q: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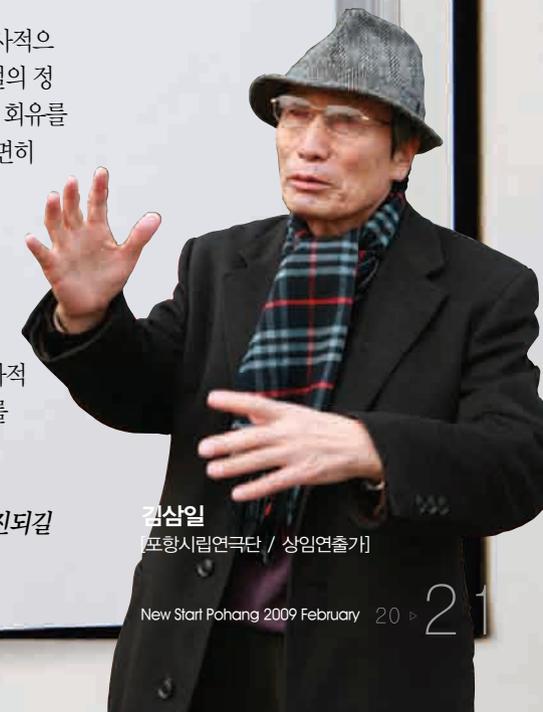
A: 포항은 예로부터 지조, 의리, 충절이 뭉쳐진 고장입니다. 포항의 정신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연오랑 세오녀의 빛의 정신을 비롯하여 포은 정몽주의 지절의 정신, 임란을 거쳐 구한말 일본 격퇴 정신으로 이어져오고 있죠. 특히 일본의 온갖 회유를 마다하고 순국한 최세운 의병장의 항일 정신이야말로 포항 백성들의 정신에 면면히 스며들어 6.25학도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좀 더 상업적인 작품을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A: 포은도서관에 가면, 일본인이 집필한 포항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않은 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포항의 역사와 사진들이 있어요. 내가 현재 선 위치에서 애국하는 길은 연극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연극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세워 나가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최세운 의병장의 유품과 역사적 사료가 담긴 기념관 건립이 하루 빨리 추진되길 바라며 단원들의 연습 지도를 위해 연습실로 향했다.

김삼일
포항시립연극단 / 상임연출가



포항,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 모았다 [30여 기관단체 참여한 범시민 민생안정 비상대책회의 열어]



포항의 대표적 경제관련 기관·단체들이 작금의 경제상황에 공동 대응하면서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민생안정을 꾀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를 조기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월 13일 포항시를 비롯한 30여개 경제유관 기관·단체들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범시민 민생안정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각 기관·단체별로 경제난국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해 1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당초 목표치보다 5,000개가 늘어난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조기집행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대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를 선도하기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연봉 3% 반납분인 1억1,670여만 원과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예산 10% 절감액 1억4,000여만 원을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여성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최대 기업인 포스코는 투자확대와 협력업체 지원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 포스코 Master Plan’을 발표했고, 포항북부경찰서도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을 연중 설치하여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영일만항 조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 밖에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포항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은행 포항본부, 신용보증기금 포항지점, 대구은행 포항영업부 등에서도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책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종 경제 상황과 대책에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제위기에 처한 시민들 ‘긴급구호’ 벌인다

포항시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소득상실과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보면 생계지원은 4인기준 최대 132만6,000원, 의료지원은 300만원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주거지원은 32만5,000원(4인기준)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이나 가정은 가까운 관공서에서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인 관광객 10,000명 유치한다

포항시는 올해 들어 지자체 최초로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일본전담 T/F팀을 조직하고 본격적인 일본인 관광객 및 투자유치에 나섰다. 시는 이미 일본인 150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친 팸투어를 실시했고, 죽도시장 맛 기행과 구룡포 일본인 가족 관광이 선호 관광지로 조사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1만 명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죽도시장은 사계절 해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을거리가 생산되는 곳으로 일본어간판 제작, 홍보물 제작, 상품소포장 등을 통해 이들의 관광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구룡포 일본인 가옥이 100년 가까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활용한 일본가옥 조성과 거리복원에도 힘을 기울인다.

새마을기념관 전시·보존자료 수집 나서



포항시는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새마을기념관에 전시·보존할 70~8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이번에 수집하는 자료는 새마을운동 관련책(연구논문, 계획서, 지침서, 성공사례집, 교육교재, 화보집, 홍보물 등), 영상물(슬라이드, 영화필름, 비디오, CD 등), 새마을상징물(새마을기, 새마을복장, 모자 등), 교육기자재, 사진첩, 새마을훈 포장, 새마을사업에 사용된 각종 도구,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 활동기록 및 소장품 등이며 오는 7월까지 자료목록 및 기증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시청 새마을봉사과나 각 읍면동, 그리고 포항시새마을회에 접수하면 된다. 수집된 자료는 기증자를 표시하여 새마을역사관에 영구 전시·보존한다.

주요 정류소 버스정보시스템 서비스 실시

포항시는 3월 7일부터 시외버스터미널, 흥해, 기계, 구룡포, 오천, 동해, 청하 등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비롯한 주요 정류소 30개소에 시내버스정보시스템(BIS)을 설치하여 정류소별 노선버스 도착정보, 노선별 주요 경유지 및 도착예정 시간, 시정홍보 및 공고사항 등을 안내한다. 한편, 버스정보시스템(BIS) 홈페이지, 모바일, ARS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한다.

공무원, 학습동아리로 경쟁력 키운다

포항의 도시경쟁력 강화는 공무원들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포항시는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경쟁력있는 핵심인재 양상을 위해 ‘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 학습동아리란 새로운 지식습득과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공부하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임을 말한다. 포항바로알기, 정책기획력향상, 실패사례연구, 역발상시정 등 주제별 희망자 신청을 받아 10개 분야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국 최초 건축 현상설계 대행서비스

포항시는 올해부터 공공의 성격을 띠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국에

서는 최초로 설계경기(현상설계)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 설계경기 대행서비스란 공공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시에 현상설계를 의뢰하면, 테라노바팀에서 설계경기 방식과 공모자 선정 방식 결정, 설계지침 작성, 공모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거쳐 작품접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입상작 발표, 시상과 전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설계경기 서류와 작품을 인계하게 되며, 설계경기 요청기관에서는 선정된 디자이너와 실시설계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포항시 남구 일원 간선도로 및 공단주변 교통체증 지역에 대하여 교통흐름 개선, 도로기능 회복,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상대동 대해성당 삼거리, 해도동 등외과 사거리, 대송면 신기동 사거리 등 3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

포항야구장 건립한다



포항야구장 건립이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야구장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간 야구장 운영에 따른 예상 운영수입이 시의 직접운영 수입만을 고려하는 경우 3억8,500만원의 순운영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상대동 현 남구청사 뒤 간이야구장에 부지 4만8,300㎡, 1만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키로 했다. 포항야구장은 총사업비 210억원(국비80,도비49,시비81)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3월은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달이다. 해빙기 자율 점검 및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공사장은 지반 침하로 굴곡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절개지는 토사 및 낙석이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그리고 축대 및 옹벽은 주변 건축물 균열이나 기울기 발생 등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 경제위기 극복 생생 아이디어 공모

포항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생생(生生)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시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 20일까지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유치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난국 조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생생(生生)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코너 또는 시청 전략경영팀으로 우편이나 팩스[270-3719]로 접수하면 된다.

》》 기업경영 애로해결 컨택센터 운영

(재)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 인종, 노무,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상담, 자문지원 등)을 지원하는 컨택센터(Contact center)를 설치 운영한다. 분야별 전문가(자문위원)의 기업애로사항 상담 및 자문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 기업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공공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기타 지원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포항시는 4월 29일 실시되는 경북도 교육감선거에 대비, 관내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 등 주민등록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오는 4월 7일까지 '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의 1/2을 감경해 준다.

》》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의견 받는다

포항시는 3월 6일부터 27일까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의견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270-6283 남구청 세무과, 240-7283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3월 시민정보화 무료 교육 안내



- 교육과정 : 컴퓨터 왕초보 등 9개 과정 9개반
- 신청기간 : 2009. 3. 2(월) 09:00부터 선착순
- 교육 및 신청 접수 장소
 - 시청 시민정보화교육장 강의실(문화복지동2층)

- 남구 시민정보화교육장 1,2강의실(종합운동장2층)
 - 북구 시민정보화교육장(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층)
 - 교육 과정 및 시간, 인원, 인터넷 접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culture.ipohang.org> (강좌/시설/공연 안내서비스)로 접속하면 된다. ID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후 실행
- [문의 : 270-2304 정보통신과 지역정보담당]

》》 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

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용 시에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스템 준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2월 2일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포항시는 중증장애인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장을 건립한다. 오는 9월 완공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남구 대도동 388-1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3층, 지하층, 연면적 1,060㎡ 규모로 건립되며,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장은 10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 이들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 EM 발효액 무상공급

EM생활환경실천회(회장 손신숙)에서는 수질정화와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유효미생물인 EM발효액을 시민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자원봉사를 함께 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장 소 : 구. 청소과(포항세무서와 나루끝 사이)
- 내 용 : EM발효액 무상공급, EM비누 판매, 회원모집

[문의 : 243-8780]

● EM발효액이란? ●

EM(Effective Microorganism)은 유용미생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식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강력한 항산화물질을 생성하여 부패를 막고, 발효를 촉진하는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화장실 및 집안청소, 하수구 약취, 설거지, 세탁 등에 합성세제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악취 제거와 수질정화에 뛰어난 효능 발휘하며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이 가능함.

》》 경제난국 조기극복 의회 · 집행부 따로 없다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한 의원연수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월 12일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초청특강을 실시했는데, 이 자리에 집행부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도 모두 동참했다. 매일 실시되는 의원연수이지만 이번에는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연수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인 기획재정부 김화동 재정정책국장을 초청, "경제난 조기극복과 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은 뒤 경제현안에 대한 활발한 질의 응답 토론시간을 가져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포항스틸러스 시즌카드 전달식 가져



포항시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전체의원 간담회장에서 지난해 FA컵 우승을 차지해 시민화합과 자긍심 고취, 포항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인 포항스틸러스에 대한 시즌카드 전달식을 갖고 스틸러스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전체시의원과 포항스틸러스 김태만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달식에서 최영만 의장은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거둬 경제한파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탁월한 지도력으로 연이은 우승을 이끌어 낸 파리아스 감독에게 한글 이름 '빠리다' 전달식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전달된 한글이름 "빠리다"는 빠르고 우리 포항에 이로움(利)을 많이(多) 준다는 의미와 파리아스의 공격축구 스타일을 포항사투리로 재미있게 표현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로부터 공모해 선정됐다.

》》 경제의회 보여준 제152회 임시회 폐회



제152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2월 12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개회 첫날부터 집행부 부시장 및 국소장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남 북구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으로 강행군된 이번 임시회는 예년과 달리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조기집행 등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경제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했다.

》》 이 · 통장 업무 중 사고 시 보상방안 마련

포항시의회 이상범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이 · 통장의 업무수행 중 사고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월 12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업무수행 중 사고발생 시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이 · 통장들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행정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권광호 시의원, 경북의정봉사대상 '금상' 수상

권광호 포항시의회 의원이 경북시 · 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상하는 2008년도 경북의정봉사대상 '금상'을 수상했다. 권 의원은 지역 현안과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과 지방의회 위상제고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90년 전 포항 모습 담긴 사료 발견



1920년대 포항면과 구룡포(창주면) 시가지의 모습, 주요건물, 사회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자료가 발견됐다. 이 사료는 1929년 당시 구룡포에 거주하던 일본인(河合清治)이 조선정보협회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2절지 규격의 2도 컬러인쇄물로서 도시단위별 상황을 소상히 알리는 시가지종합안내서다. 이 사료의 전면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지어진 건물명칭, 상호, 소유주, 전화번호까지 소상히 기록돼 있으며, 주요건물과 시설장면이 사진으로 배치돼 있다. 이면에는 당시 시가지(도시) 개황을 비롯해 연도별 인구동태, 가구 수, 교육기관 및 재정 상황, 산업별 구조와 생산량, 기관단체명과 현황, 음식점, 운송수단, 직업별 현황 등이 소상히 담겨 있다.

이주여성들 "한국요리 정말 맛있어요"



연일읍복지회관 자원봉사회 임원(이주여성 대모 서순금 외 9명)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국제결혼이주여성 14명과 합

께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훈훈한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또 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한글공부에 취미를 붙일 수 있도록 동반자녀들의 보모역할을 자처하는 등 우리문화에 순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FIFA, 포항스틸러스 '한국 최고 구단' 인정

포항스틸러스가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 구단으로 인정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1월 홈페이지를 통해 '포항스틸러스 성공 스토리'라는 글을 '클래식 풋볼' 란에 올려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포항을 알렸다. FIFA는 포항을 K-리그 4회, FA컵 및 아시안클럽 챔피언십에서 각각 2회 우승을 차지한 K-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팀이자 가장 오래된 팀으로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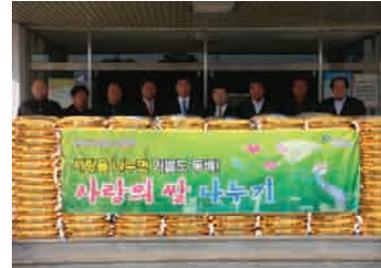
대구은행 '포항사랑통장' 기부금 전달

지난 1월 대구은행은 '포항사랑통장'으로 조성된 공익기금 2,500여만 원을 (재)포항시장학회(이사장 박승호 포항시장)에 기탁했다. 포항사랑통장은 지난 2005년부터 대구은행이 판매중인 경북특화상품으로, 매년 지급이자의 일정금액을 은행부담 하에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전달하고 있다.

직 · 공장새마을협, 전국최우수협의회상 수상

직 · 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회장 이창석)가 지난 2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2008년 전국 직 · 공장새마을운동중앙 평가에서 최우수협의회상을 수상했다. 포항시협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전개, 지역사회와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익명의 독지가 기탁 '사랑의 쌀 나누기'



대송면(면장 황영록)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정해중 포항시의회의원, 한규현 이장협의회장 등 단체장과 함께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진 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달한 사랑의 쌀은 10kg들이 500포(시가 1천만원)로 익명을 부탁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송면에서 선정한 신(新)빈곤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 300세대에 전달되었다.

韓水케미칼(주), 희망 2009 이웃돕기성금 기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소재 韓水케미칼(주) 김상수 대표이사가 지난 1월 12일 희망 2009 이웃돕기 성금으로 300만원을 포항시에 기탁했다.

경상북도 교육감선거에 참여합시다!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경상북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지역교육을 발전시켜 나갑시다. 이번 선거는 만 19세 이상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직선제'로 치러집니다.

- 선거정보 확인 www.nec.go.kr:7070/jbeservlet/amin.jsp
- 불법선거 선관위 신고 제보 [남구256-3939], [북구254-3939]



작가노트

목선(木船)은 속도와 경제성의 논리에 잡혀 침식이 진행되는 우리시대의 냉혹한 단면입니다. '무조건 빨리 달려야 한다는 망국 속도중독증의 미친 세월을 만나' 이 땅의 아름답고 한가로운 간이역이 내동맹이치고 있듯이 우리 아버지 형제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목선의 운명은 항구의 바닷물이 그리하듯 겨우 명맥을 연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선들의 부침과 함께했던 배 목수들은 너넉한 삶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봄날처럼 좋았던 시절 돌아올 일 까마득하여도, 몸으로 체득한 평생 업이었기에 여태껏 손을 놓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스쳐지나가던 풍경에서 작심하고 담버든 시간이 세월이라 할 수가 없어, 목선과 함께한 배목수의 작업에 대한 깊이와 그 내막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잊혀져 사라져갈 운명의 목선 뒷자락을 담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고단한 모습의 사진을 허락한 모든 분들과, 조선소에서 예쁜 다방레지가 타주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목선의 선이 여인의 목덜미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최흥태 : 1961년 경북 포항 출생, 現 포스코 근무
2002년 3인전 1999년 '사회적 풍경' (포항문화예술회관) 2000년 '사회적 풍경' (초대전 포항 포스코갤러리) 2002년 '부재의 풍경' 기획전 (서울 스페이스) / 2002년 '도시의 얼굴' 기획전(갤러리 작은행복 개관전 기획) / 1999년-2006년 '포항아트페스티벌' 사진부문